

지역 매아리

완주군, 전통시장 장보기 홍보 나서

완주군이 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완주군은 30일 봉동생강골시장에서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전북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완주본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군의원, 공무원과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었다. 봉동생강골시장장은 전통이 깃든 곳으로 지역민들의 오랜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날 참여자들은 제수용품과 생필품 등을 구입하고 완주군 으뜸상품권 구매와 전통시장 장보기 동참을 적극 홍보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전통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장을 찾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정취하고 소비자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을 격려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의회, 군·경 장병 위문

김제시의회의장 운주현은 30일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김제 3대대, 김제경찰서 및 김제소방서를 차례로 방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경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과일과 라면상자 등을 전달했다.

운주현 의장은 "지역을 지키고 시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희생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시민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열심히 복무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설 연휴 특별 응급 진료체계 가동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과장 강진호)에서는 설 연휴기간 동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 환자의 원활한 치료와 후송을 위한 특별 응급 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김제시 보건소는 설 연휴기간 동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응급 진료체계를 가동하는 등 비상 진료체계를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설 연휴 첫날인 2월 2일부터 6일까지 보건소에 의료대책반을 설치 운영하고 응급환자 및 일반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편의를 위해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환자진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도 지역별 환자 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연휴기간 중 보건소 및 소방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이용하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당직의료기관의 진료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30일 지평선산업단지에 투자하는 (주)극동테크와 백구농공단지에 투자하는 (주)한신과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제시, 투자 열기 훈풍!

시-극동테크-한신 투자협약 체결... 42명 신규 채용 박준배 김제시장, 나인권 도의원 등 20여명 참석

김제시는 30일 2층 상합실에서 지평선산업단지에 투자하는 (주)극동테크와 백구농공단에 투자하는 (주)한신과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준배 김제시장과 차주하 전북도 투자금융과장, 나인권 도의원, 황영석 도의원, 운주현 시의장, 유진우 안전개발위원장과 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주)극동테크는 플라스틱 제품과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신규 아이템의 개발과 생산을 위해 지평선산업단지에 1차 1만3,278.5㎡(약 4,000평) 규모에 100억원을 투자하고 신규로 22명을 채용하고, 2차로

올해 안에 연접부지에 1만3,884.7㎡(약 4,200평)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협약의 대표 기업으로 일려져 있는 (주)한신은 고소사다리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확장을 위해 백구농공단에 2만3,544㎡(약 7,120평) 규모에 100억원을 투자하고 신규로 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주)극동테크는 이날 투자협약과 함께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매매계약도 체결하고, 곧바로 착공 예정이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매매계약으로 지평선산업단지 분양률은 81.1%에 달해, 경제 위기로 투자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김제시의 투자에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주)극동테크의 권혁신 대표는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새로운 투자를 한다는 것이 굉장한 모험이지만 이 모험이 더 큰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지평선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주)한신 고재필 대표는 "특장하면 김제로 통할 정도로 업체에 잘 알려져 있다. 김제에 추가 투자를 결정한 만큼 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평선일반산업단지 투자를 결정해주신 (주)극동테크와 백구농공단에 투자를 결정해주신 (주)한신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께 감사드리며, 기업의 성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투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식품강화 전담 조직 '먹거리 정책과' 신설

완주군, 농식품산업 종합적 육성·관리·지원

완주군이 농식품산업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완주군은 농식품산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육성, 지원하는 '먹거리 정책과'를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먹거리 정책과는 하부 조직으로 1개 팀이 신설되고 4개팀이 개편돼 ▲푸드플랜팀(신설) ▲식품가공팀 ▲로컬푸드팀 ▲식품산업팀 ▲위생안전팀 등 총 5개팀이 구성됐다. 완주군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에 분야별로 흩어져 있던 식품관련 팀을 한데 모아 시너지를 높였으며, 먹거리 종합계획인 푸드플랜과 정책 방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푸드플랜

팀을 신설했다. 푸드플랜은 지역 먹거리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 식생활, 영양,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과 단계를 종합·관리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 계획이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해 11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선언하고 관련 영역을 통해 자체 계획을 수립했으며, 먹거리의 공공성 강화 및 기본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사업을 구체화 하고 있다. 특히 먹거리관련 민원인들의 편의도 높였다. 기존 민원인이 농업, 식품, 환경 등

분야별로 관련 부서를 찾아다니던 불편함을 없애고, 먹거리 정책과에서 로컬푸드를 비롯해 식품의 교육, 가공, 위생, 정책, 6차 인증까지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먹거리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농림축산식품부 정책방향과도 맞춰 지역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겠다"며 "군민 모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보장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과 신설을 통해 밀라노 도시 먹거리 협약 이행과 푸드플랜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교월동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월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큰 호응

'마음을 여는 노래교실' 등 무료 참여 가능

김제시 교월동(동장 정우근)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월동은 주민들에게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마음을 여는 노래교실'과 '찾아가는 수치침 교실' 프로그램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스트레칭, 웃음체조, 실버댄스 등 음악과 건강이 함께하는 '실버에어로빅' 프로그램을 추가·운영하며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어 주민들

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매주 화요일 마음을 여는 노래교실, 매주 금요일에는 찾아가는 수치침 교실과 실버에어로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내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정우근 교월동장은 "지역 주민들 모두가 일상 속 생활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활력 충전소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30일 관내에 있는 은나래실버센터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완주군의회,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 격려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생활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사랑과 희망을 나눴다. 완주군의회 의원들은 30일 관내에 있는 은나래실버센터 외 2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화장지, 라면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생활자들을 만나 담소를 나누었다. 또한,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시설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

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등원 의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명절에 오히려 소외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주위의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군민 모두가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